

# 협의이혼 청구자의 원가족 경험 분석

## Analyses of Experiences of Family of Origin among the People Filing Consensual Divorce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전 영 주\*

신라대 가족상담센터

연구원 이 성 희

The Division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Professor : Chun, Young-Ju

Center for Couple and Family Therapy

Researcher : Lee, Sung-Hee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family of origin among those who decided consensual divorce. Questionnaires regarding family relationships, alcohol problem, domestic violence, and health in family of origin were distributed to 500 people who visited Busan Family court for filing divorce and 334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y the staff of the Family court in April, 2004. As for analyzing the data, using SPSS/WIN 10.0 program,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more respondents tended to report that their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was bad in their childhood than parent-child relationship. Second, 41% of all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parents have had alcohol problems, and 32% reported that there had been domestic violence between their parents. Third, the overall score of health in family of origin was lower than the medium score, which implies the lower health in family of origin among the divorce deciders. Lastly,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experiences of family of origin in terms of som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education, and religion. Women tended to perceived their family relationship more positively than men did. Also, highly educated group of divorce deciders reported lower parental alcohol problem and higher health in family of origin than the group of lower education. Respondents which had specific religions reported that their parents have had less alcohol problems, and higher health in family-of-origin.

---

△주요어(Key Words) : 이혼(divorce), 원가족 경험(the experience of family of origin), 협의이혼 (consensual divorce)

### I. 서 론

급증하는 이혼과 함께 지난 10여 년 간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혼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컨대 이혼에 대한 태도 및 이혼과정에서의 성차(김성희, 2003; 이재

경, 2000; 한경혜 등, 2003; 한경혜 등, 2004; 한경혜·이정화, 2002), 이혼원인 분석(곽배희, 2001; 김순옥·노명숙, 2000; 이경성, 2001; 이무영·이소희, 2003), 그리고 이혼 후 적응(옥선화·성미애, 2004; 김득성·문현숙, 2003) 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가족의 의미가 제도에서 관계로 전이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혼에 대한 시각 역시 법률적인 혼인 중

---

\* 주 저 자 : 전영주 (E-mail : yjchun@silla.ac.kr)

결의 의미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의 파탄이라는 의미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혼원인에 대한 개인적/관계적 수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남, 녀 간의 성격차, 사고방식 차이가 주된 이혼의 원인으로 지각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의 부족, 애정의 부족, 역할갈등 등의 관계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이현송, 1999). 우리나라 이혼자들의 경우 상대배우자의 원가족 간섭을 이혼의 원인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처가의 간섭을, 아내는 시댁의 간섭을 이혼에 기여한 사유로서 보고하고 있다(전영주, 2006).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의 성장기 가족배경과 원가족 애착문제가 이혼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가족의 관계가 정서형성과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 되어왔다(Amato, 1999; Benson et al., 1993).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 자녀 또한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Amato, 1999), 이는 자녀가 부모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학습하게 되어 결혼불화가 세대전수된다는 설명과 (Amato & Booth, 2001) 결혼갈등을 일으킨 불안요인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는 설명이 있다(Kerr & Bowen, 1988). 원가족 경험은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으나, 가족 내 기본적인 두 하위체계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축으로 관계의 만족도, 건강성 등을 측정하며, 술문제나 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증상의 여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원가족 경험과 이혼간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의 이혼 연구들은 이혼자의 원가족 배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혼의 경험이 성별이나 학력, 종교 등의 사회적 변수들과 관련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나(Kitson, 1994), 이혼자 집단 내에서 원가족 경험과 사회적 변수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이혼의 경험은 이혼유형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유형에 따라 이혼연구가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간에는 이혼사유는 물론, 이혼의 과정과 이혼 후 적응에서 상이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혼관련 연구들이 연구목적과 대상 표집과정에서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수행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혼의 약 85%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에 관심을 두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청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가족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협의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관계와 술, 폭력문제의 경험, 원가족 건강성 등에 대해 분석하

고, 이혼자들의 원가족경험이 성별, 학력, 종교 등의 변수와 관련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찰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이혼청구자들의 원가족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 원가족 건강성은 어떠한가?

1-1 이혼청구자들의 원가족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는 어떠한가?

1-2 이혼청구자들의 원가족 건강성은 어떠한가?

1-3 원가족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 원가족 건강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성별, 학력, 종교에 따라 이혼청구자의 원가족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2-1 성별에 따라 이혼청구자의 원가족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2-2 학력에 따라 이혼청구자의 원가족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2-3 종교에 따라 이혼청구자의 원가족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 1. 이혼의 실태 및 협의이혼의 문제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이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총 이혼 건수 167.1천 건으로 2002년 145.3천 건에 비해 21.8천 건(15%) 늘어났으며, 98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고,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139,365(일 평균 381쌍)이 이혼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이혼한 167,096쌍(건)에 비해 27,731쌍이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이혼율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숙려 기간 도입 등)가 점차 고조된 결과로 이혼 과열양상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 여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이혼연령은 남자 41.8세, 여자는 38.3세로 2003년 보다 남자 0.5세 여자 0.4세 각각 많아졌으며 10년 전(94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 0.4세 각각 많아졌다. 이처럼 이혼연령의 상승은 2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 증가와 혼인연령의 상승 등에 기인한다. 이혼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65.5%가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2004년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65.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자녀를 2명 두고

이혼한 경우는 32.7%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28.1%, 3명 이상인 경우는 4.7%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한편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은 서구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혼의사의 합치, 법원의 확인, 신고의 3단계를 거쳐 혼인종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혼의사가 합치되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 방식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협의이혼의 건수는 재판이혼보다 약 4.1배가량 많으며, 전체 이혼의 약 85%를 차지한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이혼이 성립되는, 이혼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제도이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협의이혼은 절차가 너무 간소하고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무제한적이라는데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간소한 이혼절차는 부부의 자율적 선택 존중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훗날 이혼을 부추기고,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간과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혼의사 확인제도 또한 확인 대상이 부부당사자의 이혼의사 진정 성립의 확인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혼에 수반되는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이혼이 성립될 우려가 높다. 협의이혼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이혼으로써 상처를 입게 되는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혼전 상담은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그동안 재판상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는 판례 분석이나 가사조정 사례 등을 통해 비교적 다각적인 분석이 되어왔으나(김순옥·노명숙, 2000; 이현송, 1999), 협의이혼만을 구분하여 행해진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혼의 사유가 다양해지고 개인적, 관계적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원가족 경험과 이혼

가족은 정서적 장(emotional field)으로서 자녀들의 미래 가족의 의사소통과 대인역동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부부의

건강한 관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율성과 친밀감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의 경험에서 학습된다. 대개 결혼의 이상은 그들이 자란 가정의 배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의 결혼 생활은 자녀의 결혼 생활의 모델이 되며,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지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tahmann & Hiebert, 1980; 송성자, 1995; 유은희, 1991; 이종원, 2002; 전춘애, 1994; 주디스윌러스타인 외 지음, 양은모 옮김, 2000; 재인용).

Gottman과 Krokoff(1989)은 정서지능이 높은 부부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호이해가 깊고, 서로 존경함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부의 정서역량은 원가족 경험에서 형성되며 부부의 정서역량이 낮을수록 결혼지속기간도 짧아짐을 밝혔다(Gottman & Levenson, 2000). Canfield(1983)는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건강수준과 현재 가족의 건강수준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원가족의 경험과 부부의 결혼유지기간을 연구한 Wilcoxon & Hovestadt(1985)의 연구는 원가족의 경험이 비슷한 부부의 결혼유지기간이 더 긴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ewis & Spanier(1980)는 원가족에서 부모의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결혼의 질도 높다고 하였다. 부모의 결혼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자녀들도 긍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부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한다.

Buckanan 등(1991)은 원가족의 경험에서 부모가 갈등상황에 있을 때 자녀들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와 정서가 전수되어 진다고 하였다. 부부갈등이 심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 끼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분노나 분개를 느낄지라도 분노를 절제하고, 협조적으로 부모역할을 하며, 의견 차를 좁혀가며, 싸움이나 폭력에 자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덜 나타낸다(Hetherington et al., 1989).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중 하나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갈등이나 이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인다는 사실이다. Amato(1999)의 12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커플의 경우 10%가 이혼을 했고,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커플의 경우 15%가 이혼을 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경우는 30%가 이혼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혼의 세대전수 가설은 자녀가 부모의 결혼 의사소통 기술을 모델링 함으로서 학습했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의 결혼에 대한 헌신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 결과로 보는 두 가지가 있다.

가족 내의 술과 폭력의 문제는 종종 가족의 역기능성의 지표로 간주된다. 특히 폭력은 가족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 학대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과 사회·정서적 부적응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세대 간 전수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규련 외, 1997). Cumming 등(1989)은 부모의 고통스러운 부부생활, 언어적·육체적 적대행위들(폭력)은 자녀들로 하여금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육체적 공격성에 노출된 자녀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한 편견, 관심과 지원 요구 등의 문제대처 전략에 이상을 나타낸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처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른 상황의 분노에도 매우 민감하여 안전보호 욕구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심리 뿐만 아니라 문제대처 능력에도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성장기에 학대와 무시를 당해온 아동은 초기 양육자와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98( 59.3)
	여자	136( 40.7)
연령	30세 이하	19( 5.9)
	31~40세	118( 36.9)
	41~50세	131( 40.9)
	51세 이상	52( 16.3)
학력	국졸 이하	29( 8.8)
	중학교 졸	63( 19.0)
	고등학교 졸	170( 51.4)
	전문대 졸	25( 7.6)
	대학교 졸 이상	44( 13.3)
종교	없다	125( 38.5)
	기독교	32( 9.8)
	천주교	15( 4.6)
	불교	150( 46.2)
	기타	3( 0.9)
본인소득	없다	81( 27.0)
	100만원 이하	83( 27.7)
	100~199만원	94( 31.3)
	200~299만원	37( 12.3)
	300~399만원 이상	5( 1.7)
배우자소득	없다	80( 40.2)
	100만원 이하	53( 26.6)
	100~199만원	36( 18.1)
	200~299만원	21( 10.6)
	300~399만원 이상	9( 4.5)
합계		334(100.0)

불안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애착을 형성하며, 특히 학대받은 아동들 중에는 불안-비조직적 애착양식을 갖게 된다(Cicchetti, 1989; Lyons-Ruth & Block, 1996; 김용숙·박명숙, 2000; 재인용). Lynch와 Cicchetti(1991)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를 받은 집단의 6세에서 12세까지의 약 30%의 피해자가 어머니와의 혼동된 관계 유형을 나타냈으며, 6학년이 되었을 때 투사적 반응에서 학대받지 않은 동료집단보다 관계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약 80%의 학대받은 아동은 정서와 충동조절 실패를 포함하여 비조직적 애착을 발달시키며(Barnett et al., 1992; Carlson et al., 1989; Crittenden, 1988; Lyons-Ruth, 1991; Lyons-Ruth et al., 1991; Main & Solomaon, 1990), 대인관계 지속의 어려움(Cole & Putnam, 1992) 및 반응성 애착장애(Offord et al., 1991)를 나타냈는데, 이 연구들은 초기 학대와 유기가 이후 대인관계의 내적실행모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가족 내 술 문제 또한 가족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폭력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가족원이 복잡한 상호작용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가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주문제는 종종 심각한 이혼사유가 되는데, 남성 18.5%, 여성 20.8%가 음주를 이혼의 원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전영주, 2006). 알콜 중독은 배우자간의 문제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중요하고도 잠재적으로 위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콜중독자와 배우자간에는 갈등관계가, 배우자와 자녀는 부적절한 세대간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가까이 갈수록 관계는 파괴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성장기 원가족에서의 술문제 및 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원가족의 기능성 및 이혼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준거가 제공된다고 하겠다.

### III. 연구 방법론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며, 협의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한 남, 여 334명이다. 설문조사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협조와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으며, 개인적 비밀이 보장된다고 알려 주었다. 설문은 2004년 3~4월 중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한 협의이혼 신청자들 500명에게 법원직원에 의해 배포,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들을 제외한 총 334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원가족 가족관계와 술, 폭력 문제에 대한 회고형 문항, 둘째, 원가족에 건강성 척도, 셋째,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원가족 가족관계와 술, 폭력 문제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가족관계에 대한 척도는 한국 가족연구회(1993)에서 제시한 문항을 참고로 4문항을 사용하였다. 2문항은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와 현재의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묻는 문항이며, 2문항은 성장기에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현재의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묻는 문항이다. 이 척도는 '매우 좋았다' 1점에서 '매우 나쁘다' 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된다.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4에서 20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술, 폭력 문제에 관한 척도는 한국가족연구회(1993)에서 제시한 문항 중 6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중 세 문항은 이혼 청구자들의 부모의 술 문제로 어려움과 이혼 청구자 자신의 문제에 술 문제 어려움은 없었는지, 배우자의 술 문제에 관한 문항이고, 나머지 세 문항은 부모님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사용했는지, 이혼 청구자들이 부모로부터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배우자로부터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이 척도는 '전혀 없음' 1점에서 '빈번함' 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된다.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6에서 30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술, 폭력 문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2) 원가족의 건강성

성장기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측정은 최현미(1996)가 제안한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근원가족척도(The Family-of-Origin Scale-55: FOS-55)는 개인이 자신의 근원가족의 건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개발자인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은 FOS를 자율성과 친밀감의 두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 보고식의 40문항을 구성하였다. 원척도에 대해 최현미는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고, 가족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치중되어 있는 점과 미국의 주류문화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가족 전문가

에 의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또한 결혼 기간 5년 이내의 서울과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부부 395명을 대상으로 70문항으로 구성된 원가족 척도 수정안을 요인 분석한 결과 다차원적인 8요인의 총 55문항이 추출되었고,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가 .95로 높게 나타났다.

근원가족 척도의 8요인은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 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확대 가족내 독립성, 공동체 의식 및 가족의 공평성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제 1요인의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은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격려하는 정도로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다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문항이 주축을 이루며, '서로의 이해심'과 '정겨운 가족 분위기' 문항을 포함한다. 16문항 중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문항이 6문항이며, '다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은 4문항이며, '서로에 이해심'에 관한 문항은 3문항이며, '정겨운 가족 분위기'에 대한 문항은 3문항이다. 최현미(1996)의 원가족 건강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 척도(FOS-16)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된다.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6에서 80까지이다. 네 하위 범주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70로 나타났다.

3) 사회통계학적 변인

본 연구는 성별,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종교, 소득 등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설문 첫 장에 제시되고 있으며, 전체 1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 원가족 건강성

1) 이혼 청구자들의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1)

1) 각주 표 <표 2-1>. 현재의 원가족 관계 및 방위가족의 술과 폭력의 문제

변인구분	구분	빈도(%)	M	SD
현재 부모님의 부부관계	매우 나쁘다	12( 4.9)	3.40	0.99
	나쁜 편이다	23( 9.3)		
	보통이다	99( 40.1)		
	좋은 편이다	81( 32.8)		
	매우 좋다	32( 13.0)		

&lt;표 2&gt; 이혼 청구자들의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

변인	구분	빈도(%)	M	SD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	매우 나빴다	12( 3.8)	3.32	1.02
	나쁜 편이었다	47( 14.9)		
	보통이었다	131( 41.6)		
	좋은 편이었다	78( 24.8)		
	매우 좋았다	47( 14.9)		
성장기 부모님과 본인의 관계	매우 나빴다	7( 2.2)	3.50	0.86
	나쁜 편이다	20( 6.4)		
	보통이었다	131( 41.7)		
	좋은 편이다	120( 38.2)		
	매우 좋다	36( 11.5)		
부모님의 술 문제	전혀 없음	134( 45.0)	2.15	1.22
	거의 없음	42( 14.1)		
	가끔 있음	79( 26.5)		
	자주 있음	30( 10.1)		
	빈번함	13( 4.4)		
부모 사이의 폭력	전혀 없음	143( 47.2)	1.93	1.05
	거의 없음	64( 21.1)		
	가끔 있음	77( 25.4)		
	자주 있음	11( 3.6)		
	빈번함	8( 2.6)		
부모로부터의 (본인) 폭력	전혀 없음	202( 66.2)	1.57	0.96
	거의 없음	55( 18.0)		
	가끔 있음	34( 11.1)		
	자주 있음	5( 1.6)		
	빈번함	9( 3.0)		
합계		334(100.0)		

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경험 중 가족관계가 어떠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을 보면, 이혼 청구자들은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 문항에 대해 '나빴다'는 비율이 18.7%(M=3.32)로

나타났다. '성장기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나빴다'는 비율은 8.6%(M=3.50)로 나타났다. 참고로 각주1)을 통해 '현재 부모님의 부부관계'와 '현재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 '현재의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나쁘다'는 비율은 14.2%(M=3.40)로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현재 부모님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의 관계는 7.5%가 '나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관계'와 '현재의 가족관계' 중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M=3.32)'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술과 폭력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부모님의 술 문제'는 '있었다'가 41%(M=2.15)로 나타나 이혼청구자들의 '부모님의 술 문제'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각주1)에서 이혼 청구자들 '본인'과 '배우자의 술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이혼 청구자들 자신의 술 문제에 대해서 '있었다'가 30.9%(M=1.90)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술 문제'에 대해서는 '있었다'가 36.7%(M=2.16)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	매우 나쁘다	7( 2.5)	3.50	0.85
	나쁜 편이다	14( 4.9)		
	보통이다	124( 43.8)		
	좋은 편이다	106( 37.5)		
	매우 좋다	32( 11.3)		
자신의 술 문제	전혀 없음	159( 51.8)	1.90	1.08
	거의 없음	53( 17.3)		
	가끔 있음	68( 22.1)		
	자주 있음	22( 7.2)		
	빈번함	5( 1.6)		
배우자의 술 문제	전혀 없음	137( 45.2)	2.16	1.31
	거의 없음	55( 18.2)		
	가끔 있음	65( 21.5)		
	자주 있음	20( 6.6)		
	빈번함	25( 8.6)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전혀 없음	130( 42.9)	2.17	1.22
	거의 없음	50( 16.5)		
	가끔 있음	82( 27.1)		
	자주 있음	24( 7.9)		
	빈번함	17( 5.6)		
합계		334(100.0)		

한편 이혼청구자들의 부모님의 폭력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님 사이의 폭력'이 있었다는 비율이 31.6%(M=1.93)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으로의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은 16%(M=1.57)이므로, '부모님 사이의 폭력'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2) 이혼청구자들의 원가족 건강성

<표 3>은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건강성'을 네 하위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16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가족 건강성의 16문항을 4하위범주인 '자유로운 의사표현' '다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서로의 이해심' '정겨운 가족 분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경험 중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평균 2.9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겨운 가족 분위기'가 평균 2.88, '서로의 이해심'이 평균 2.79, '다른 가족에 대한 존중감'이 평균 2.7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 하위 범주의 평균값 모두 중앙값인 3점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각하는 원가족 건강성은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이혼 청구자들의 가족관계, 술, 폭력문제, 원가족 건강성 간의 상관관계

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관계', '술', '폭력 문제',

<표 3>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건강성 네 하위범주

문항	M	SD
자유로운 의사표현	2.91	0.55
다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2.70	0.58
서로의 이해심	2.79	0.50
정겨운 가족 분위기	2.88	0.58

'원가족 건강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현재의 원가족관계나 방위가족의 술, 폭력경험은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아니나, 세대전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수이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 분석 결과 '성장기 귀하와 부모님의 관계'(r=.59, p<.01)', '원가족 건강성'(r=.36,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모님 사이의 폭력'(r=-.42, p<.01)', '부모님으로의 폭력'(r=-.39, p<.01)', '부모님의 술 문제'(r=-.35, p<.01)에 대해서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성장기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 관계도 좋지 않으며, '원가족 건강성'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술 문제', '부모님 사이의 폭력', '부모님으로의 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귀하와 부모님의 관계'와 상관관계는 '원가족 건강성'(r=.43, p<.01)이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님으로의 폭력'(r=-.40, p<.01)', '부모님 사이의 폭력'(r=-.34, p<.01)', '부모님의 술 문제'(r=-.21, p<.01)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성장기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원가족 건강성'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님으로의 폭력', '부모님 사이의 폭력', '부모님의 술 문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기 이혼 청구자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부모님의 술 문제'와 상관관계는 '부모님 사이의 폭력'(r=.51, p<.01)', '부모님으로의 폭력'(r=.39, p<.01)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원가족 건강성'(r=-.26, p<.01)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부모님의 술 문제'가 높을수록 '부모님 사이의 폭력', '부모님으로의 폭력'이 높다. '부모님의 술 문제'가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은 낮았다.

<표 4> 이혼 청구자들의 가족관계, 술 문제, 폭력 문제, 원가족 건강성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	1.00										
2. 현재 부모님의 부부관계	.65**	1.00									
3. 성장기에 귀하와 부모님의 관계	.59**	.53**	1.00								
4. 현재 귀하와 부모님의 관계	.43**	.55**	.61**	1.00							
5. 부모님의 술 문제	-.35**	-.34**	-.21**	-.16*	1.00						
6. 자신의 술 문제	-.19**	-.17**	-.25**	-.12	.39**	1.00					
7. 배우자의 술 문제	.04	.00	.09	.13*	.13*	.14*	1.00				
8. 부모님사이의 폭력	-.42**	-.30**	-.34**	-.22**	.51**	.26**	.05	1.00			
9. 부모님으로의 폭력	-.39**	-.36**	-.40**	-.29**	.39**	.23**	.03	.64**	1.00		
10.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02	.02	.09	.15*	.15**	.04	.40**	.25**	.19**	1.00	
11. 원가족 건강성	.36**	.42**	.43**	.42**	-.26**	-.18**	-.11	-.20**	-.34**	-.05	1.00

\*p<.05, \*\*p<.01

‘부모님 사이의 폭력’과 상관관계는 ‘부모님으로의 폭력 ( $r=.64, p<.01$ )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원가족 건강성 ( $r=-.20, p<.01$ )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부모님사이의 폭력’은 ‘부모님으로의 폭력’과 높은 관계가 있다. ‘부모님 사이의 폭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으로의 폭력’ 또한 높다. ‘부모님 사이의 폭력’이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은 낮다. ‘부모님으로의 폭력’과 상관관계는 ‘원가족 건강성( $r=-.34, p<.01$ )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부모님으로의 폭력’이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은 낮다.

2. 성별, 학력, 종교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원가족 경험 차이

1) 성별에 따른 원가족 경험 차이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

<표 5> 성별에 따른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경험

변인	성별	N	M	SD	t
가족관계	남자	188	3.30	0.81	-2.646**
	여자	131	3.55	0.86	
부모님의 술 문제	남자	171	2.15	1.23	-0.024
	여자	127	2.15	1.22	
부모님의 폭력문제	남자	180	1.81	1.23	1.327
	여자	129	1.67	1.22	
원가족 건강성	남자	180	3.16	0.66	-0.832
	여자	130	3.22	0.60	

\*\*p<.01

족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검정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는 유의확률 값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t=-2.646, p<.01$ ). 반면 술 문제, 폭력문제, 원가족 건강성에 대해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력에 따른 원가족 경험 차이

학력에 따라 이혼 청구자들의 ‘가족관계’, ‘술’, ‘폭력문제’, ‘원가족 건강성’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여 차이 유무를 검증하였으며, Duncan Test를 사용하여 차이의 양상을 검증하였다. <표 6>에서 이혼청구자의 학력에 따른 ‘가족관계’, ‘술’, ‘폭력문제’, ‘원가족 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술 문제’가 학력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3.617, p<.05$ ). 즉, ‘대졸 이상’에서 술 문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M=1.71$ ), ‘국졸+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2.32$ ). ‘부모의 술 문제’에서는 ‘국졸+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전문대 졸’ 집단과, ‘대졸 이상’의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족 건강성’ 또한 학력 집단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F=2.952, p<.05$ ). 즉, 가족관계 ‘원가족 건강성’에 대해서는 ‘국졸+중졸 이하( $M=3.04$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 이상( $M=3.33$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족 건강성’에서는 ‘국졸+중졸 이하’의 집단과 그 외의 집

<표 6> 학력에 따른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경험

변인	구분	N	M	SD	F	Duncan
가족관계	국졸+중졸	84	3.38	0.91	0.603	
	고졸+전문대 졸	190	3.38	0.80		
	대학교 졸 이상	42	3.54	0.84		
	합계	316	3.40	0.84		
부모님의 술 문제	국졸+중졸	77	2.32	1.21	3.617*	B
	고졸+전문대 졸	176	2.19	1.24		B
	대학교 졸 이상	42	1.71	1.11		A
	합계	282	2.16	1.22		
부모님의 폭력문제	국졸+중졸	82	1.74	1.05	0.033	
	고졸+전문대 졸	182	1.77	0.86		
	대학교 졸 이상	42	1.76	0.93		
	합계	282	1.76	0.92		
원가족 건강성	국졸+중졸	73	3.04	0.70	2.952*	A
	고졸+전문대 졸	172	3.21	0.61		B
	대학교 졸 이상	37	3.33	0.55		B
	합계	282	3.18	0.63		

1. \*p<.05

2. Duncan Test 결과로 같은 기호의 알파벳(예: A, B)은 사후집단 평균차이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함.



단 '고등학교 졸+전문대 졸', '대학교 졸 이상'의 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종교에 따른 원가족 경험 차이

이혼청구자의 '종교'에 따라 이혼 청구자들의 '가족관계', '술', '폭력문제'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검증하였고, Duncan Test를 사용하여 종교에 따른 차이의 양상을 검증하였다. <표 7>에서 '종교'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술 문제'에 대해 종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741, F<.05). 즉,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에서는 부모의 술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원가족 건강성에 대해서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는데(F=3.314, P<.05), 천주교 집단의 원가족 건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협의이혼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을 찾은 협의이혼 청구자들 334명의 성장기 가족관계, 원가족에서의 술과 폭력의 경험, 원가족 건강성

등에 대한 설문을 수집, 분석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성별이나 학력,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8.7%가 성장기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나빴다'고 응답했으나, 성장기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는 8.6%만이 '나빴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원가족의 술과 폭력문제의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41%가 성장기에 부모님의 술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31.6%가 부모님 사이의 폭력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15.7%가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협의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건강성 척도 분석 결과, 네 하위영역인 '자유로운 의사표현', '다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서로에 대한 이해심', '정겨운 가족분위기'의 평균값 모두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나, 협의이혼 청구자들이 전반적인 원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장기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반면 학력집단에서는 대졸 이상이 부모님의 술 문제가 적었으며, 중졸 이하의 집단의 원가족 건강성이 낮게 나타났다. 종교 변수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에서 부

<표 7> 종교에 따른 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경험

변인	구분	N	M	SD	F	Duncan
가족관계	없다	120	3.28	0.88	2.216	
	기독교	31	3.61	0.89		
	천주교	13	3.69	0.75		
	불교	143	3.44	0.78		
	합계	307	3.40	0.84		
부모님의 술 문제	없다	113	2.37	1.26	3.741*	B
	기독교	29	1.69	1.17		A
	천주교	14	1.57	0.94		A
	불교	130	2.12	1.20		B
	합계	286	2.15	1.23		
부모님의 폭력 문제	없다	117	1.87	0.97	1.063	
	기독교	30	1.58	0.94		
	천주교	15	1.73	0.92		
	불교	135	1.70	0.87		
	합계	297	1.76	0.92		
원가족 건강성	없다	108	3.09	0.62	3.314*	A
	기독교	27	3.40	0.66		A
	천주교	14	3.52	0.74		B
	불교	125	3.16	0.62		A
	합계	274	3.17	0.64		

1. \*p<.05

2. Duncan Test 결과로 같은 기호의 알파벳(예: A, B)은 사후집단 평균차이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함.

모님의 술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천주교 집단의 원가족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청구자들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발견과 재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드러난 중요한 발견은 이혼청구자들이 원가족과의 현재 관계보다 과거 성장기의 가족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특히 성장기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회고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생애의 양육자와의 관계가 훗날 성인기의 대인관계를 결정짓는다는 내적실행 모델보다 자녀가 부모의 결혼 상호작용을 모델링 함으로써 본인의 결혼관계에서도 유사한 역동을 갖게 된다는 사회학습모델의 주장과 좀 더 일치하는 듯 하다. 원가족 건강성의 네 영역에서 모두 중간 이하의 평균값을 나타낸 점은, 협의이혼자들이 원가족에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표현과 가족원간의 존중감 부족, 상호이해심의 부족, 침체된 가족분위기 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했음을 암시한다.

둘째, 응답자의 1/3 이상이 성장기에 부모님의 술 문제 및 부모님 사이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본인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15.7%)에 비해 성장기의 부모의 술 문제(41%)나 부모사이의 폭력문제(31.6%), 자신의 술 문제(30.9%), 배우자의 술 문제(36.7%)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협의 이혼자들이 술과 폭력이 만연된 원가족과 방위가족의 문제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Buckanan(1991)에 의하면 원가족에서 갈등이 직면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의 능력을 자녀가 학습한다고 하였고, 최규련(1997)은 자녀에게 폭력을 노출시킴으로서 폭력이 세대 전수되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혼자들이 합리적인 문제해결방법 대신 술과 폭력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부모의 술 문제와 이혼자 본인의 술 문제의 상관성, 부모의 부부 폭력과 부모로부터의 자녀 폭력의 상관성, 부모사이의 폭력과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상관성 등이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부적절한 방식이 세대간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umming(1989)의 주장처럼 부모의 고통스러운 부부생활, 특히 언어적, 육체적 폭력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문제 대처에 이상을 나타내게 만들고 자녀의 결혼 생활에서도 갈등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한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이혼청구자들의 성장기 가족 경험 분석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술 문제나 폭력의 경험에서는 남, 녀 차이가 없었으나, 성장기 가족관계에서는 성차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정적으로 성장기

가족관계를 지각하고 있는 점은, 이혼자들의 성장기 가족 경험에서 남, 여 성차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뒷받침 해준다(Gerstel, 1985; 김혜련, 1995). 한편 부모님의 술 문제가 응답자의 학력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은, 협의이혼의 사유에서도 학력과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면 폭력문제는 응답자의 성별, 학력,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협의이혼자 집단이 결코 동질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이혼자를 위한 교육적, 상담적 개입도 차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법원을 찾은 협의이혼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을 조사하여 이들의 성장기 가족관계와 술, 폭력 문제, 원가족 건강성 등을 고찰하였다. 이혼유형을 구분하여 협의이혼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첫째, 이혼자 집단과 건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기혼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족 경험요인들이 어떻게 이혼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가정법원에 막 이혼 청구한 상태의 응답자들이 감정이 격앙되어 원가족이나 결혼관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협의이혼 청구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부모님의 이혼여부와 같은 심층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원가족 요인과 이혼에 대한 인과론적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집단과 결혼해체를 결정한 집단간의 원가족 경험을 비교분석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커플을 분석의 단위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6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6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04일

#### 【참 고 문 헌】

- 곽배희(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득성·문현숙(2003).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0(6), 197-211.
- 김성희(2003). 청년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김순옥·노명숙(2000). 판례에 나타난 이혼원인 분석. *생활과학*, 97-120.
- 김용석·박명숙(2000). 청소년 문제 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무영·이소희(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2), 39-61.
-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 사유의 변화. *가족과 문화*, 11(2), 73-97.
- 옥선화·성미애(2004). 20, 30대 이혼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 전영주(2006). 이혼원인에 대한 협의이혼 청구자의 지각 및 성차.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1-19.
- 조정문·장상희(2001). *가족 사회학*. 도서출판 아카넷.
- 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도서출판 하우.
- 통계청(2002). 2002년 혼인/이혼통계결과.
- 통계청(2005). 2004년 혼인/이혼통계결과.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 한경혜·강유진·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한경혜·김주현·강혜원(2004). 성인남녀의 이혼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 한경혜·이정아(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 Amato, P. R. & Stacy, J. R.(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4), 612-624.
- Cicchetti, D. & Barnitt, D.(1991). Attachment organization in maltreated preschool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97-411.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T. & Marvin, R.(199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mplications for Theory, Measurement & Research. In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ed).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3-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 Kitson, G.(1994). *The cause of divorce*. Portrait of divorce.
- Gottman, J. M. & Levenson, R. W.(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49, 85-94.
- Hetherington, E. M., Stanley Hogan, M. & Anderson, E.(1989). Materi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212.
- Lewis, R. A. & G. B. Spanler.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42(4), 825-839.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Wilcoxon, D. S. & A. J. Hovestadt.(1985). Perceived similarity in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dynamic adjustment: A comparison across years of marriage. *Family Process*, 12, 165-173.

## &lt;부 록&gt; 이혼 결심자들의 원가족 건강성

문항	척도	빈도(%)	M	SD
1. 우리 가족은 새로운 친구와의 교제를 지지 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 22.7)	2.67	1.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 15.2)		
	보통이다	104( 37.5)		
	그런 편이다	60( 21.7)		
	매우 그렇다	8( 2.9)		
2. 우리 가족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9.0)	2.94	0.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 17.9)		
	보통이다	132( 47.3)		
	그런 편이다	60( 21.5)		
	매우 그렇다	12( 4.3)		
3.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존중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6.5)	3.01	0.91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 15.9)		
	보통이다	145( 52.5)		
	그런 편이다	55( 19.9)		
	매우 그렇다	14( 5.1)		
4.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 8.5)	3.06	0.97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 14.0)		
	보통이다	123( 45.2)		
	그런 편이다	75( 27.6)		
	매우 그렇다	13( 4.8)		
5. 우리 가족에서 내 태도나 감정은 자주 무시당하거나 비난 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70( 25.5)	2.19	0.9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8( 42.9)		
	보통이다	61( 22.2)		
	그런 편이다	18( 6.5)		
	매우 그렇다	8( 2.9)		
6. 가족 앞에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8.1)	3.16	1.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 12.5)		
	보통이다	112( 41.3)		
	그런 편이다	85( 31.4)		
	매우 그렇다	18( 6.6)		
7. 때때로 우리 가족 내에서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8.8)	3.00	0.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 16.4)		
	보통이다	123( 44.9)		
	그런 편이다	72( 26.3)		
	매우 그렇다	10( 3.6)		
8.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차갑고 부정적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 22.6)	2.29	0.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2( 36.6)		
	보통이다	91( 32.6)		
	그런 편이다	16( 5.7)		
	매우 그렇다	7( 2.5)		

&lt;부록&gt; 계속 ▶

문항	척도	빈도(%)	M	SD
9. 우리 가족은 서로의 견해에 수용적이지 못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0( 14.7)	2.62	0.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72( 26.4)		
	보통이다	120( 44.0)		
	그런 편이다	35( 12.8)		
	매우 그렇다	6( 2.2)		
10. 우리 가족에게는 갈등을 말할 수 있고 해결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 11.9)	2.95	1.0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 17.0)		
	보통이다	116( 41.9)		
	그런 편이다	64( 23.1)		
	매우 그렇다	17( 6.1)		
11. 가족 앞에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전혀 그렇지 않다	49( 17.80)	2.55	1.01
	그렇지 않은 편이다	76( 27.6)		
	보통이다	108( 39.3)		
	그런 편이다	35( 12.7)		
	매우 그렇다	7( 2.5)		
12. 우리 가족의 식사시간은 대개는 정겹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10.5)	3.03	1.01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 11.6)		
	보통이다	137( 49.6)		
	그런 편이다	59( 21.4)		
	매우 그렇다	19( 6.9)		
13.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5( 20.0)	2.50	1.03
	그렇지 않은 편이다	74( 26.9)		
	보통이다	109( 39.6)		
	그런 편이다	28( 10.2)		
	매우 그렇다	9( 3.3)		
14.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쉬웠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7.0)	3.00	0.9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 15.0)		
	보통이다	150( 54.9)		
	그런 편이다	46( 16.8)		
	매우 그렇다	17( 6.2)		
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때가 많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8.7)	3.03	1.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 14.9)		
	보통이다	133( 48.2)		
	그런 편이다	58( 21.0)		
	매우 그렇다	20( 7.2)		
16. 나는 우리 가족을 따스하고 지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 8.3)	3.13	1.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 11.2)		
	보통이다	132( 47.5)		
	그런 편이다	70( 25.2)		
	매우 그렇다	22( 7.9)		
합계		334(100.0)		